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6-01호 / 1월 3일

중국의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응답①

Q1: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현재 중국의 거시조정정책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경제에서 거시조정정책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거시조정정책으로 인하여 디플레이션 발생에 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1: 두 질문 모두 현재 중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다. 거시조정정책은 차량 운전과 비유할 수 있는데, 시동, 가속, 정차의 과정이 포함된다. 처음 2년 동안은 주로 가속 과정이고 작년과 금년은 중간에 속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추세로 보면 이런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물가상승이 너무 빨라서 정부는 통제를 통해서 물가를 낮추었고, 이런 추세로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세 외에 또 한 가지의 힘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거시조정정책의 힘이다. 따라서 2006년에 중국정부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소비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가격 정책도 취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디플레이션

① 본 자료는 2005년 12월 13일 KIEP 북경사무소 주최 월례세미나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宏觀經濟研究院 천둥치(陳東琪) 부원장의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세션을 정리한 것이며, 발표자료(2006년 중국경제 정책방향 및 전망)는 북경사무소 <한중경제포럼 2005-08호>를 참조할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격통제를 한다면 중국에서 1998년 및 1999년과 같은 디플레이션 현상은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Q2: 중국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과잉생산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산 의류제품, 신발 등의 제품은 해외에서 반덤핑 제소를 받고 있으며, 철강제품 수출은 미국과 EU 등지에서 역시 반덤핑 제소 및 제소 검토에 직면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예상되는 무역마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A2: 지금 중국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의 의류, 신발 및 철강제품 등이 반덤핑 제소를 당한 것은 각국이 자신의 입장에서 본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이런 저급한 수준의 경쟁이 중국에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 이들 산업에서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들 산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원소모형 산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해당 분야에서 신규로 시동된 대형 프로젝트는 이미 거의 없다. 그러므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러한 생산과잉 산업에 대하여 압력을 넣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압력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을 당장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중국정부는 주로 시장기능에 의한 조절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자국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압력도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생산방식의 전환 효과는 몇 년 후에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Q3: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경제는 계속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강사회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고속성장이 지속되고, 중국경제의 자유화도 점차 진전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가? 중국 경제학자들은 왜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어떤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것인가?

A3: 인플레이션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첫째 중국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다. 둘째 중국은 저축률이 매우 높고 저축수준도 매우 높다. 셋째 중국의 가계부문에게는 자산투자의 경로가 적다. 넷째, 중국의 생산성은 대폭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다섯째는 중국의 공급능력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크지 않다. 정부에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Q4: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점진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중국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환율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A4: 점진적 평가절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에는 주로 세 가지의 고려가 있다. 첫째, 1985년 일본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은 일본경제에 디플레이션과 10년 동안의 경제불황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중국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중국경제는 현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대폭적인 평가절상은 수출기업이 창출하는 취업기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폭적으로 평가절상 한다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평가절하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안정성에 대한 세계적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으로 점진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 중국의 수출기업이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단언하기 어렵다. (完)